



위 <젊은 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 국립현대미술관 설치광경
2019
아래 <관할 아닌 관할>
서버, 컴퓨터, 조이스틱, HMD
2013
왼쪽 페이지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
단체널 영상, 스테레오, 나무, 물,
점토, 열선, 조명 12분 2019



안성석 Ahn Sungseok

1985년 수원에서 출생했다. 상명대에서 사진영상미디어를 전공했다. 작가는 자신이 속한 세대와 시대, 국가와 시스템을 기록함으로써 현실의 상황과 개인적인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하고 있다. <사적 경험>(2012), <Open Path-관할 아닌 관할>(2013), <내일의 도덕>(2014), <회전하는 기억, 인계동 1013-2번지>(2016), <따가워>(2018)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젊은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에 참여했다. 현재 수원에서 작업하고 있다.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5년 만에 재개한 <젊은 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에서 작가를 처음 만났다. “물리적인 젊음보다는 젊은 정신을 보여주는 작가”들의 작업 사이에서 나는 공간 중앙에 설치된 물침대의 감각에 유독 집중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을 강타한 물침대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침대에 앉아보지 않고는 못 배겼으리라.

울렁거리는 물침대 위에서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이리저리 몸을 가누는 관객들은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진 영상과 마주한다.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작업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지나온 과거를 회고하는 발자국으로 채워져 있다. 미래가 희망이라면 과거는 아쉬움이다. 작가는 과거를 아쉬워하기엔 아직 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후회는 오히려 더 명징하고, 현재진행형이며, 변화의 의지가 엿보이는 성찰로 읽힌다.

너무도 많은 해석의 여지를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작업들의 홍수 속에서 필터 없는 브이로그 형식의 일기장 같은 작업을 마주하는 건 꽤 오랜만이였다. 작업을 하며 살아가는 지난함 속에서 찌릿을 예술에 대한 질은 의심과 회의를 국립미술관의 공간 정중앙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다. “예술계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졌다고 약한 사람 조롱하거나 능멸하거나, 뭉개는 일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명청하게도 여러 전시에 가볍게 소모됐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작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본 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 영상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내레이션은 만족스러운 확답이나 소통, 믿음이 부재했음을 자각한 예술가로서 토로하는 개인적인 고민으로 읽힌다.

개인으로서의 안성석과 작가로서의 안성석의 간극에 빠곡한 텍스트, 내레이션, VR 게임의 가상공간, 고전게임 OST가 오버랩된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단지 개인적인 고민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담보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워크온워크에서

열린 개인전 <Open Path-관할 아닌 관할>에서도 작가는 송전탑, 전투경찰, 미 대사관 등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의식을 가상공간의 문법으로 보여준 바 있다.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2019) 역시 개인적인 경험이 사회적 사건에 대한 상징으로 치환되는 지점을 보여주는데, 영상 말미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을 무심하게 촬영하던 여고생은 다음 장면에서 휴대전화와 함께 바다물에 잠긴다. 일견 폭력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기술 매체의 확장과 함께 무자비하게 몸집을 불러가는 무관심과 증오를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면, 차갑게 출렁이던 바다는 다시 떠오르는 새벽의 해를 맞이하며 붉은빛을

띤다. 마치 과거만큼 불안하지는 않을, 조금은 더 나은 미래를 조심스럽게 조망하는 듯하다. 작가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적인 일기장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작업이 관객에게 공감각적인 경험과 일체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물침대는 편안함과 불편함의 경계를 오가는 아득한 감각과 함께 작가의 성찰에 몰입할 수 있는 일종의 극장 역할을 한다. 관객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나약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작가의 불안과 성찰을 마주하고, 희망적이어야 하는 미래를 함께 그린다.

아이러니한 것은 작가가 예술가로서의 두터운 자의식을 놓아버리고 후회와 불안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모든 성찰의 결과를 영상과 설치로 풀어냈다는 점이다. 예술에

대한 회의감이 다시금 예술로 회귀한 셈이다. 이쯤에서 그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다른 작가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공감이 가요. 가난할 걸 알면서 작가를 선택했는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작업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감히 말하건대 작가는 ‘소용’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은 물침대 극장에 앉았던 사람들은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태어났을 때 기뻐했던 이들의 존재를 상기했을 것이고, 작가의 성찰에 공감하며 조금은 희망적인 미래를 그렸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염하연 기자